FX Spotlight

Economy | 2025.05.07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RA 김형균 hyungkyunkim@hanafn.com

달러-원 환율 1,300원대 진입. 높은 변동성 속 레벨 재탐색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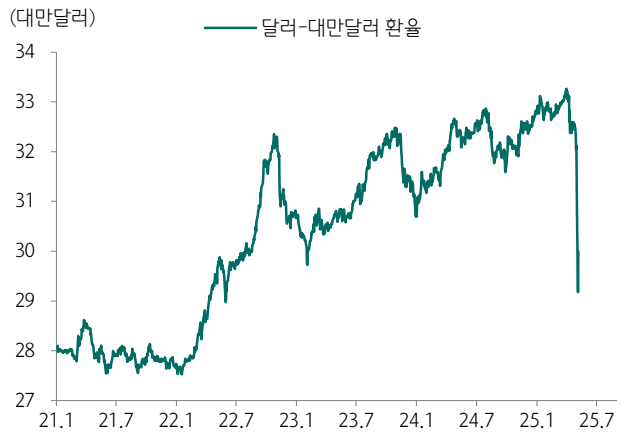
대만달러 강세와 연동되며 1,300원대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

- 달러-원 환율이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300원대에 진입. 대만달러의 급격한 강세 시현으로 원화의 동반 강세 흐름 전개
- 대만달러는 지난 5/2, 5/5 이틀 동안 10% 가량 절상됐으며, 이후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되돌림 장세 나타나며 나흘 누적으로 (5/2~5/7) 6% 절상(5/1 32.1 TWD → 5/7 30.2 TWD)
- 통상적으로 대만달러는 외환당국이 타이트하게 관리해 변동성이 크지 않으며, 2024년부터 꾸준히 대만달러가 미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환헤지 물량이 크지 않았음. 그런데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으로 대만달러 강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격한 달러 매도, 대만달러 매수세가 나타남. 특히 대만 생보사의 해외자산 보유 규모 감안 시 자산(달러)-부채(대만달러)의 미스매칭으로 환헤지 물량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판단
- 대만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아 역내 유동성이 축소되고 거래비용이 높아지자 대만달러 대신 원화 강세에 베팅하는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도 5월 연휴 중 NDF 환율이 1,373원(-29.1원)까지 하락했으며, 5/7 정규장에서 달러-원 환율 개장가도 1,380원을 기록.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및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5/7 달러-원 환율 종가(3:30pm 기준)는 1,398원을 기록하며 전거래일 대비 -7.3원 하락에 그쳤지만, 환율의 움직임이 급격히 아래로 쏠렸던 만큼 환율 레벨을 재탐색해야하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아시아 통화의 절상 압력 + 미 달러 약세 = 원화의 점진적 강세 흐름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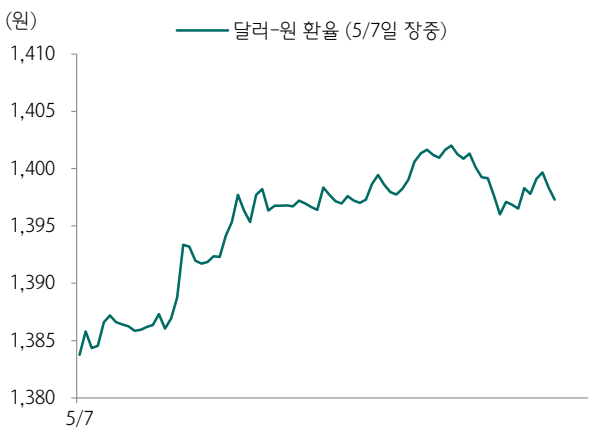
- 물론 달러-대만달러 환율 하락에 의한 원화 강세는 시장 유동성 축소로 인한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을 높게 봐야할 것. 이로 인한 원화의 급격한 절상은 지속 가능성 낮음
- 다만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통화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감안 시 아시아 통화의 강세 방향성은 유효. 한-미 무역협상도 의제가 1) 관세 · 비관세 조치, 2) 경제 · 안보, 3) 투자 협력, 4) 통화 · 환율 정책의 네 가지로 추려졌고, 기재부가 환율 관련 실무 접촉을 진행 중에 있어 달러-원 환율도 하방 압력이 우세할 듯
- 미 달러는 안전통화로서의 신뢰도 약화, 관세 발 미국 경제 부진 가능성 등을 반영해 연초 이후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중. 하반기 미국 고용시장의 둔화가 본격화된다면 미 연준 금리 인하의 타당성이 높아지며 미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협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며 최악의 국면을 지나간다면, 달러-원 환율의 점진적 하락 흐름은 유효. 원화는 미국의 무역협상 과정과 미국 경제의 둔화 흐름을 확인해 나가며 점진적으로 절상 기대
- 관건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 폭. 달러-원 환율의 추가 하락 속도는 빠르지 않을 수 있음. 취약한 국내 경기 펀더멘털(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0.8% 전망),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실물경제 흐름, 관세 발 미국 물가 상승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둘 필요
- 하나증권은 분기 평균 달러-원 환율이 2Q 1,400원 – 3Q 1,380원 – 4Q 1,360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연평균 1,398원)

그림 1. 환헤지 물량 대거 출회되며 달러-대만달러 환율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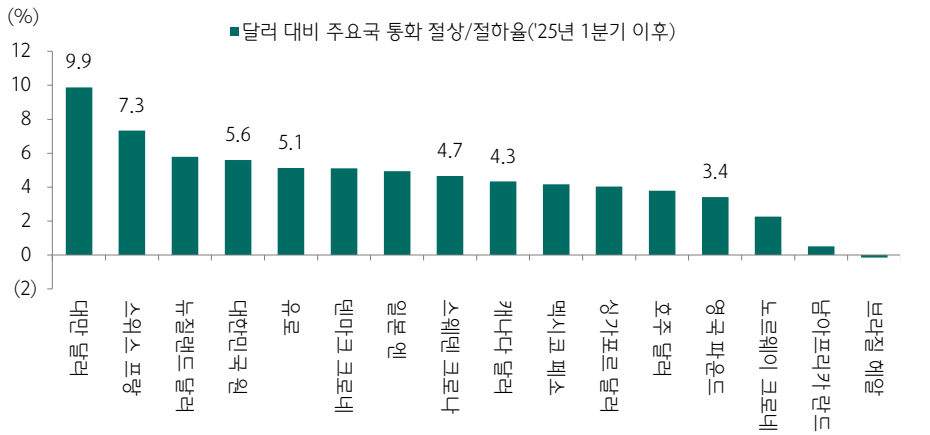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그림 2. 대만달러 평가절상 이후 달러-원 환율의 장중 가격 변동(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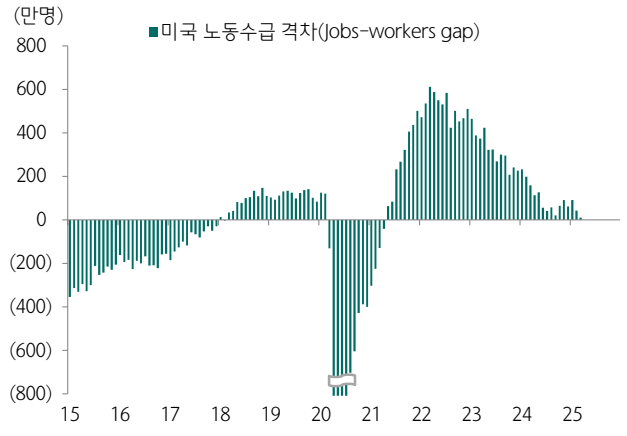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그림 3. 25년 1분기 이후 주요 통화의 절상/절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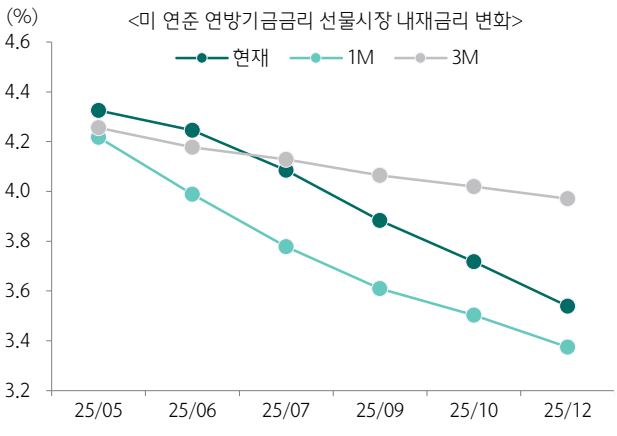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그림 4. 미국 기업들의 구인 수요 약화로 빈 일자리 줄어드는 중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그림 5. 금리선물시장의 미 연준 금리 인하 전망 변화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